호남신문의 새 로고는
타원형의 우주안에 '태풍의 눈'을 형상화해
무한한 역동성과 함께 정의로운 언론으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더 큰 관심을 갖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배어 있습니다.

호남신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022호 (음력 9월 20일) 2020년 11월 5일 목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서해 앞바다 비경 한눈에"…영광군, 칠산타워 주변 개발

먹거리·볼거리 풍부한 관광지 조성 목표…개발계획 수립

전남 최고 높이 칠산타워·칠산대교 개통 관광객 수요 증가

서해 앞바다의 비경과 노을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 일대 '칠산타워' 주변이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된다.

영광군은 청사 2층 소회의실에서 '영광 칠산타워 주변 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용역은 칠산타워 지척에 있는 섬 목도와 영광군이 매입한 7만여㎡를 포함한 15만㎡ 부지에 공원과 녹지, 숙박·체험·교육·전시·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영광군은 앞서 칠산타워 주변 개발을 위해 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을 하고, 경관성·교통성·재해영향성 검토를 마쳤다.

수산자원 보호구역·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산지협의·전략적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함으로써 내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할 수 있게 됐다.

영광군은 전남 최고인 111m 높이의 칠산타워와 더불어 지난해 칠산대교 개통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민소득 창출 공간 조성을 위해 맞춤형 관광단지 개발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칠산타워를 중심으로 누구나 먹고, 즐기고, 체험하고, 머물며 쉴 수 있는 관광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관광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석봉 영광군 부군수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칠산타워 주변을 다양한 해양체험관광, 힐링, 웰니스 관광지로 조성해 영광군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하늘에서 바라본 전남 영광군 염산면 향화도 칠산타워(사진 오른쪽)와 무안군 도리포를 잇는 국도 77호선 칠산대교. (사진=영광군 제공)

전남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대회 성료

한국노총 전남본부 주관 화순 모후산서…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가 주관한 전남지역 노사민정 산업평화 실천대회가 4일 화순 모후산 주차장에서 개최됐다.

실천선언대회는 전남 노사민정이 고용과 산업기반이 취약한 전남에 노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전남 행복시대를 열어 도민의 삶이 바뀌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병태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이신원 한국노총전남본부 의장, 이민수 전남경총 회장, 이송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남지부회장, 임승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종갑 화순부군수 등 노사민정 관계자와 근로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실천선언문에서 △노사민정이 다함께 뜻을 모아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조성,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전남지역에 합리적인 교섭문화를 조성해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신원 한국노총 전남본부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노사상생을 위한 오늘 실천선언이 노사간 이해의 폭을 넓혀 산업평화가 정착됨으로써 노사상생형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잘 사는 전남이 한층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사람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가 더욱 힘쓰겠다"며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통해 으뜸 전남을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세대수·분양가 '표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 사업자 측이 광주시에 3번째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광주시가 또 다시 재검토를 요청하면서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예치금 납부 기한이 임박한데다 토지소유자들도 보상가 문제로 집단 반발하는 등 난제도 쌓여 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양이 최대 주주로 참여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이 최근 사업계획 변경안을 시에 제출했다. 8월 18일, 9월23에 이어 세번째 변경안이다.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비공원 시설 면적을 기존 7.85%에서 8.17%인 19만8994㎡, 2370세대를 2922세대로, 용적률은 199.80%에서 212.15%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초 계획 대비 비공원 시설은 9633㎡(0.32%), 세대수는 552세대, 용적률은 12.35% 증가했다.

'선분양 + 임대' 방식에서 '후분양 + 임대' 방식으로 변경하고, 3.3㎡당 평균 분양가는 애초 85㎡ 이하 1500만원, 85㎡ 초과 2046만원, 85㎡ 이하 임대 1350만원이던 것을 85㎡ 초과 1900만원, 85㎡ 이하 임대 1350만원으로 변경했다.

사업자 측, 광주시에 3차 절충안 제시
"수익성 낮다" 85㎡ 이하 '없던 일로'
광주시, 분양원가 공개 등 재검토 요청

당초 383세대에 달했던 85㎡ 이하 분양 아파트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아예 공급하지 않는 대신 85㎡ 초과 분양물량과 임대물량은 각각 182세대, 703세대(3.3㎡당 1590만원)를 늘려 공급키로 했다.

지난해 7월 광주시 요청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중앙공원 1지구를 포함한 서구 전체를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서 1500만원대 이상의 분양가는 현실적으로 책정할 수 없게 된데 따른 절충안이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사업자 측에 분양원가 공개를 다시 요구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제출하고 시민의견 수렴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분양원가 공개는 시공사가 결정할 사항이고 원가 공개 확약 후 참여할 시공사는 없다"는 사업자 측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경·교통영향평가 심의와 분양가 인하, 후분양 전환 등을 감안,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공원시설 면적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전적으로 수용되진 않았다.

시는 재검토 후 최종 변경안이 제출되면 이에 대한 타당성 검증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비공원시설 종류와 규모, 용도지역 등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 서민, 중산층이 선호하는 85㎡ 이하 분양세대는 당초 계획대로 유지토록 조치했다.

이런 가운데 3200억원에 이르는 예치금 납부기한(2021년 1월 중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상 가격이 턱없이 낮다"며 토지소유자들마저 집단 반발하고 나서 공공성을 주된 목적으로 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상당 기간 더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동취재본부